http://dx.doi.org/10.15686/FKL.47.0.11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여성의 탈장소와 이동성의 주체

유인혁*

목차

1. 전시 서울 : 탈장소와 여성의 도시 읽기
2. 계동 고가 : 장소의 파괴와 이동하는 여성 주체
3. 옥희도의 집 : 파괴되지 않은 장소와 모성
4. 미군 PX : 식민화된 생존과 성역할의 전도
5. 경서호텔과 황태수의 집 : 성애의 장소와 탈식민
6. 계동 양옥 : 장소의 재생, 혹은 탈장소의 실천

〈국문초록〉

박완서는 막 성년에 진입한 여성이 전시 서울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왔다. 이 간단한 요약은 박완서 문학에서 전쟁과 젠더, 그리고 지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압축한다. 그것은 전시 서울이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여성의 성장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었는지를 문제화한다.

박완서가 그녀의 첫 소설 『나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야기한 탈장소와 그에 따른 주체화다. 전쟁은 장소를 파괴했다.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가정의 영역을 해체했다. 안전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소'의 파괴는 여성을 불안정한 신분과 고독한 자립, 적대성의 세계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목』의 여성(이경)은 도시 읽기(city reading)의 주체가 되었다. 탈장소의 상황이 주어진 후, 이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경은 일상적으로 도시의 광역(廣域)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도시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다.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울의 이모저모를 관찰하게 된다.

『나목』의 서사는 여성이 전시 상황에 의해 새롭게 경험하게 된 여러 장소들의 연쇄로 구성된다. 이경은 미군 PX, 옥희도의 집과 황태수의 집, 경서 호텔 등 다양한 장소를 가로지르는데, 각각의 장소로 이동하고,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플롯이 전개되는 것이다. 요컨대 『나목』의 이야기는 집에서 벗어난 여성이 마주친 여러 장소들의 연쇄를 통해 조직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나목』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의 새로운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새롭게 경험한 장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목』은 박완서가 이경이라는 행위자를 통해 재구성한 전시 서울의 '인식적 지도(cognitive map)'로 나타날 것이다.

국문핵심어 : 박완서, 『나목』, 전쟁, 젠더, 지리, 도시 읽기, 인식적 지도, 장소, 탈장소, 이동성, 서울

1. 전시 서울 : 탈장소와 여성의 도시 읽기

박완서는 막 성년에 진입한 여성이 전시 서울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왔다.[1] 이 간단한 요약은 박완서 문학에서 전쟁과 젠더, 그리고 지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압축한다. 그것은

1) 박완서 소설이 전쟁이라는 원체험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선행 연구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선미에게 한국전쟁 소재의 반복은 "단지 박완서 개인에게 원체험"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현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원"으로 나타났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47쪽)

전시 서울이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여성의 성장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었는지 문제화한다.

박완서의 첫 소설 『나목』에서 전쟁은 장소[2]를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해체하는 힘으로 나타났다. 이경은 전쟁으로 인해 허물어진 고가(古家)에 거주한다. 이경의 오빠는 폭격으로 사망했고, 이 때문에 어머니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무너진 집은 이경의 가족이 상징적·실제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이경은 모든 보호를 잃고 자신의 성을 상품화할 것을 요구하는 장소(미군 PX)로 내몰렸다.

그런데 『나목』에서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여성의 주체화 과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이경은 집을 떠나 주체로 자립했다. 먼저 이경의 경제적 자립은 집에서 작업장(work place)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쟁이 가정 경제 및 성역할을 붕괴시켰고, 이경을 '바깥'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동성은 성장과도 연관되었다. 이경이 욕망의 대상을 발견하거나, 신체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집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그녀는 공적 영역에서 만난 부적절한 상대와 사랑에 빠졌다.[3] 즉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이 "전쟁 기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모장"이면서 "불모의 현실 속에서 스무 살 청춘을 살아낸 성장의 주체"[4]로 그려지는

---

2) 인문지리학에서 장소(place)는 단순히 지리적 범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경험과 의미의 원천이다. (이 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또한 탈장소(displacement)라는 용어는 대개 이주(migration)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현상 및 그러한 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3) 『나목』에서 이경은 미군 PX에서 유부남 옥희도와 만난다. 『목마른 계절』의 하진은 학도호국단의 간부이자 친구의 약혼자인 민준식과 사랑에 빠졌다. 즉 두 여성은 자신이 진출한 공적 영역에서 (부적절한) 애정의 대상을 발견했다. 한편 작업장은 가족이 승인하지 않는 상대와 접촉하여 마침내 자립하는 계기가 되는 곳이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따르면 어머니는 '나'가 데려온 사람을 양반 출신이 아니며 '노가다 십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었다.

4)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157쪽.

것에는, 이렇듯 집으로부터의 이탈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여기서 박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야기한 탈장소(displacement)와 그에 따른 주체화다. 전쟁은 장소를 파괴했다.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가정의 영역을 해체했다. 그리하여 이경은 집이라는 울타리 바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가장에 의한 피보호자이자, 대학생 1학년이라는 정체성의 거점을 떠나 여성 가장이자 직업여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다.[5] 바꿔 말하면 집이라는 장소가 파괴된 후에야, 여성은 불안한 자립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안전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 "가치, 자양분, 지탱물의 중심"[6]인 장소는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해체는 여성을 불안정한 신분과 고독한 자립, 적대성의 세계로 이동시킨다. 즉 '장소로부터 이탈(displacement)'하는 경험이 여성을 주체화시켰다.

한편 이러한 탈장소의 경험은 도시 읽기(city reading)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탈장소의 상황이 주어진 후 이경은 일상적으로 도시의 광역(廣域)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도시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다.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울의 이모저모를 관찰하게 된다. 이때 『나목』의 서사는 여성이 새롭게 여러 장소를 방문함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다. 이경은 미군 PX, 옥희도의 집과 황태수의 집, 경서 호텔 등 다양한 장소를 가로지르는데, 각각의 장소로 이동하고,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플롯이 구성되는 것이다. 요컨대 『나목』의 이야기는 집에서 벗어난 여성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장소들의 연쇄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즉 전쟁은 장소를 파괴했지만, 여성의 이동성을 확장시켰으며, 도시공간을 관찰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힘을 제공했다.

이 글은 『나목』에 나타난 이경의 동선(動線)을 추적함으로써, 전쟁과

5) 『목마른 계절』의 하진은 학도호국단의 여성단원, 장사꾼, 도둑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재빠르게 전전한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과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획득했다.

6) 이 푸 투안, 앞의 책, 40쪽.

여성의 성장, 그리고 탈장소의 맥락이 갖는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경이 전시 서울을 종횡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장소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목』은 박완서가 이경이라는 행위자를 통해 재구성한 전시 서울의 '인식적 지도(cognitive map)'로 나타날 것이다.[7]

2. 계동 고가 : 장소의 파괴와 이동하는 여성 주체

『나목』에 등장하는 모든 장소들은 과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는 전쟁 때문이다. 이경의 집인 계동 고가(古家)는 이러한 변화가 가해진 핵심적 장소다.[8]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으나, 전쟁 중 파괴되어 원래의 형태를 잃었다.

> ㄱ) 어머니가 외출한 어느날 (…) 거스름돈으로 군것질을 했다는 이유로 사랑방의 높은 벽장에 갇혔다. (…) 나는 골방 속이 밖의 세상보다 훨씬 재미난 물건들로 차 있는 데 놀랐다. (…) 꿀항아리에 손가락을 넣어 꿀을 몇 번 찍어 먹어보고는 한구석에 쌓인 책으로 옮겨왔다. 재미난 책을 골라내기에는 역시 빛이 모자랐다. 이때 기적처럼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 그러다가 문득 나는

7) 케빈 린치는 소외된 도시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개인이 '인식적 지도'의 제작을 통해 '재현할 수 없는 전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evin Lynch,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프레드릭 제임슨, 강내희 역,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지본주의 문화논리」,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 198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도시 읽기와 '인식적 지도그리기'는, 자기인식 및 장소감을 상실한 시대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8) 강인숙은 "고가의 붕괴는 전쟁이 파괴하고 황폐화시킨 서울 전체의 상징이며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며 전시 서울의 알레고리로 이해했다.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1997, 93쪽)

안델센을 만난 것이다. 좁은 벽장 속에 경이롭고 영롱한 꿈의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인어요 백조요 동시에 공주였다. 귀가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벽장문이 황급히 열리며 나는 어머니에게 안겼다.

"에구구 경아야. 얼마나 놀랐니? 얼마나 울었니?"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의 가슴이 놀라 뛰고 있었다.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183-184쪽. 이후 페이지 수만 표기)

ㄴ) 어머니가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한껏 느릿느릿 수저를 놀리면서 의치를 빼놓은 호물때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물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받은 의무로 느껴져 나는 미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욕부터 가셨다. 나는 먼저 수저를 놓고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왈칵왈칵 치미는 혐오감을 되새김질했다.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는 생활 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탁탁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은 이 완강한 고집 앞에 지쳐가고 있었다. (21쪽)

ㄱ)에서 고가는 유년기의 행복과 모성과의 유대가 존재했던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경은 어렸을 적 잘못을 저질러 다락에 갇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은 이경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꿀 항아리는 어둠의 공포를 달콤한 감각으로 중화시켰다. 다락방의 온갖 '재미난 물건'은 밀폐된 공간을 놀이터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징벌의 시간 끝에는 어머니의 위로가 보상처럼 주어졌다. 그리하여 이경은 위로의 시간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접성으로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즉 유년기의 집은 친애로 가득하여, 진정 적대적인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다.

그런데 이 장소는 파괴된 채로 등장한다. 이경은 행랑채에 오빠인 '혁'

과 '욱'을 피신시켰는데, 하필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보기 싫게 일그러져나간 채인 우리 집의 지붕"은 가족 상실의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이경에게 있어 진정 장소의 파괴를 상기시키는 것은 오빠의 죽음뿐이 아니다. 이경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의 부재가 가장 핵심적으로 경험되고 있다.[9] ㄴ)은 아들을 잃은 후, 생의 의지를 잃고 '산송장(living dead)'이 된 어머니의 모습을 예시한다. 그녀의 삶은 다만 "신체의 기능이 과거의 습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10] 어머니의 "담벼락 같은 (…) 피골이 상접한 가슴"은 그녀의 모성이 고갈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신체는 허물어지는 것만 면한 '흉흉한 고가'와 같다.

여기서 여성을 장소와 연결시키는 신화는 파괴되고 있다. 집은 '나'와 어머니의 신체가 연결되고, 어머니의 친애로 인하여 모든 적대성이 해소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향수는 "쾌락적이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유아기의 세계로 은둔"하는 것이자 "모성을 향한 무한한 소멸점인 동시에 모성의 근원점"[11]을 지향하는 것이다.[12] 그런데 『나목』에서 이러한 장소는 반파(半破)된 상태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경은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을 보여준다.

---

9) 물론 박완서 문학에서 오빠의 죽음은 원체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을망정 오빠의 죽음이 전기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은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재현됐다. 요컨대 오빠의 죽음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은 사실을 넘어서는 서사적 사건이다.

10) 신샛별은 이러한 어머니의 상태를 두고 라캉의 용어를 빌어 '욕구만 있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죽음에 가까운 삶'으로 진단된다.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7쪽.)

11)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152쪽.

12) 여기서 여성은 가정과 집의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이러한 관점은 박완서 소설에서 현저동과 돈암동, 나아가 박적골 등이 파괴·훼손되지 않은 장소를 보여준다는 담론 속에 자리 잡는다. 이는 박완서 문학이 장소애(topophilia)를 복원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애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유도한다.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18쪽;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체험과 토포필리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53-56쪽;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 제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882쪽)

> 집이 가까워지면서 (…) 한쪽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나간 채인 우리 집의 지붕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 무서움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해 금세 심장이 멎을 것 같아진다.(19-20쪽)

> 누가 뭐래도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전전긍긍 전쟁을 기다리며 하루 한 번 한쪽이 달아난 검은 지붕을 경건하게 우러르며, 어머니를 미워하고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 일에서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178쪽)

고가는 생명력이 사라진 장소이다. 그곳은 죽은 아들의 무덤(tomb)과 동질화된 어머니의 자궁(womb)과 같다. 하지만 이경은 어머니와 다르다. 이경은 이 무덤을 혐오한다. 그녀는 "감추어진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이 "나와는 별개의 개체처럼 생동을 시도"하는 것을 감각한다. 이것은 그녀가 집을 이탈하고자 하는 원인이 된다. 그녀는 고가를 벗어나는 것이 "환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비록 죽은 오빠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에 동참하게 만들었지만, 이경은 점점 고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은 그녀의 귀가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 의해 드러난다. 1장에서 이경은 "전쟁에서 멀고 집집마다 불빛이 있고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 눌리면서 달음박질"쳤다. 어머니가 홀로 있는 집에 서둘러 돌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서사의 전개에 따라 이경의 인간관계는 확장되고, 옥희도의 집, 황태수의 집, 경서호텔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경의 귀가는 자연스럽게 지연된다. 마침내 이경이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자,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 고가를 벗어나는 것과 어머니로부터의 해방이 상징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 빈소가 마련되고 부엌에서는 크고 작은 솥에서 국이 끓고 항아리에서는 부연 막걸리가 그득그득 넘쳤다. 동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밤샘을 하겠다고 오고 낯선 남자들이 오래 비워둔 사랑방에서 노름판을 벌였다. 집안이 온통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높은 담소소리로 생기에 넘쳤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 직후의 이런 생기가 아직은 생소해서 생기와는 인연이 먼 북창 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홀로 축축한 무상감에 젖었다. (345쪽)

실로 어머니의 죽음은 고가에 생기를 되돌려 놓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돌연 '구수한 냄새'와 '높은 담소소리'로 생활의 소란을 회복시키고, "오래 비워둔 사랑방"에 사람을 초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어머니의 죽음이 상실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재생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경은 집과의 연결을 끊어냄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고 있다. 어머니는 집을 끝나지 않는 애도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경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듯 죽음과 동질화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욕망은 서사의 표층에 적절히 드러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경은 궁극적으로 탈장소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배덕(背德)을 해방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3. 옥희도의 집 : 파괴되지 않은 장소와 모성

계동 고가가 전쟁에 의해 파괴된 장소를 대표하고 있다면 연지동 옥희도의 집은 전쟁이 미처 파괴하지 못한, 혹은 전쟁에 맞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장소로 등장한다. 『나목』에서 이경은 옥희도의 집에 총 3번 방문했다. 옥희도의 집은 "어떤 나지막한 기와집"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특징이 묘사되지 않는다. 서술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옥희도의 부인과, 그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풍경이다. 실로 옥희도의 집은, 이

경과 옥희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경과 옥희도 부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 옥희도 씨는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심한 기침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 동안 부인은 조용히 한 손을 남편 등에 대고 기침이 멎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사기 재떨이를 입에 갖다 대고 가래를 뱉게 하는 동작이 조용하면서도 지성스러웠다. (…) 제일 어린 아이가 드디어 장지문을 활짝 열고 아랫방으로 내려와 사과 봉지를 만지작거렸다. 비위 좋게 생긴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나는 그를 사뿐히 끌어다 무릎 위에 앉히고 사과를 하나 들려줬다. 그리고 아이의 정결하고 보드라운 머리털에 코를 살며시 묻었다. 희미하게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이는 열심히 사과를 사근댔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109-112쪽)

7장에서 이경이 옥희도의 집을 방문한 것은, “어떤 심한 모욕”보다도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 옥희도의 집은 모성이 건재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아내가 병든 남편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장소다. 이경은 어린 아이가 “윤기가 나는 사과의 표피를 아낌없이 침식하고 노르께한 과육을 탐욕스럽게 먹어들어”갈 때, “오열이 터질 것”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곧 “엄마가 기다리실 거예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이때 옥희도의 집과 고가가 이루는 대조가 뚜렷해진다. 이경은 모성이 건재한 옥희도의 집과, 모성이 상실된 고가를 비교하고 있다.

12장에서도 옥희도의 집은 고가와의 대비 속에서 출현한다. 이경은 고가를 망가뜨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집에 ‘양키’를 데려와 “아버지가 늘 앉았던 폭신한 의자에도 앉히고 오빠들의 소유물이었던 이것저것들을 만지게 하고 그를 위해 부엌에서 불고기를” 굽는다는 상상을 했다. 그것은 망자들을 모욕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죽지 못해 살고”있는 ‘습관’ 이상의 것을 이끌어내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경은 이러한 상상을 실행하는 대신, “다시 한번 나도 무언가 저지르고 싶다는 격한 감

정에 휩싸"여 연지동을 찾았다. 그녀의 분노는 엉뚱하게 연지동으로 대상을 바꾸었던 것이다.

> "저라면 선생님이 죽은 나무등걸 따위를 그리는 걸 보느니, 차라리 옷을 벗고 제 몸뚱이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
>
> "뭐라구? 네 옷을 벗기느니 차라리 내가 옷을 벗겠다"
>
> "아주머닌 애를 다섯이나 낳았다는 걸 잊었나요. 선생님이 누굴 원하실 것 같아요?"
>
> "넌 도대체 뭐니?"
>
> 그 여자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음성이 떨렸다. (…)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기어이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말았다. (260-261쪽)

이경은 옥희도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이경은 옥희도의 내면에 '빈곤'이 자리를 잡게 한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폭언을 던진다. 여기서 이경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모순적이다. 우선 그녀는 연적으로서 옥희도 부인을 미워한다. 그녀가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있는 한, 이경의 기회는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은 옥희도 부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이경은 옥희도 부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매료됐다. 그녀는 옥희도가 "가난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게 방파제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이십년의 세월을 그림밖에 모르는 남자를 보살피구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아이를 함께 낳았다. 이 때문에 옥희도 부인은 "정갈한 흰색"으로 치장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인식된다. 이경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복이다. 이경이 옥희도를 유혹하게 되면, 부인의 노력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안정은 무너질 것이다.[13] 그것은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장소를 또 다른 고가로 탈바꿈시

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자신이 매료된 대상에 대한 모순된 분노는, 자신이 선망하는 장소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경이 마지막으로 옥희도의 집을 찾은 계기 역시 고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경은 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지 번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13장과 14장에 걸쳐 '욱'과 '혁'의 죽음에 얽힌 기억을 회복했다. 그리하여 "내가 전전긍긍 두려워한 건 실은 부서진 지붕이 아니라, 바로 오빠들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일 것 같은 가책"임을 떠올렸다. 한편 어머니는 아들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해졌다.[14] 그리하여 이경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쯤은 달라질 수도, 어쩌면 많이 달라질 수도, 조금의 변동도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기로에 서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원망을 이해할지, 혹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던 것이다.

> 나는 목이 긴 여자를 생각했다. 그 긴 목이 어깨가 되어 흐르는 그 유려하고도 따스한 고장에 내 얼굴을 묻을 수 있었으면. 나는 며칠 전에 그녀에게 미움을 살 짓을 거침없이 저지른 것을 잊고, 다만 그녀에게 푹 안기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집으로 가기를 그만두었다. (301쪽)

이경은 '난해한 수학풀이'같은 고민에 휩싸인 채 옥희도의 집을 찾았다.

---

13) 이경에게 이러한 부도덕한 기획은 생을 향한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고가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산송장'의 세계를 벗어나고, 심지어 모독하고 싶은 욕망과 연계되어 있다. 이경은 이미 PX에 취직함으로써, 친척들에게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녀가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도덕적인 비난은 한층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경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이끌어내고 싶다. 한편 옥희도와의 결합은 실질적으로 고가(古家)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옥희도의 반려자가 되어 고가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14)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놓으셨노"(302쪽)라는 어머니의 탄식은 이경에게 외상적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

더 정확히 말해 그의 부인을 찾았다. 이경은 "다만 그녀에게 푹 안기고 싶다고만 생각"했으며, 부부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 가족의 일원처럼 잠을 청했다. 이때 옥희도의 부인은 '풍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슬픔을 달래주던 풍요한 모성"으로 나타난다. 이경이 옥희도 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성을 긍정하자 장소는 밝고 안정적인 느낌을 회복한다. 장지문에 가려져 있던 옥희도의 화실은 이경의 꿈에서 "커다란 창"과 "풍요한 주름이 잡힌 비로드 커튼", 그리고 "부드럽고도 향긋"한 침상을 가진 곳으로 등장한다. 옥희도의 그림 역시 희망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그림을 이야기하는 "옥희도 씨의 표정은 한껏 밝고 담담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경은 옥희도의 집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고가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전상을 지닌 고가를 비로소 연민과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집에 들르는 대신 바로 PX로 출근한다. 이러한 경험은 '고가로부터의 해방'으로 재현되고 있다. 즉 그녀는 고가로부터의 완전한 탈장소를 성취한 것이다. 이것은 이경이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정했음을 뜻한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즉 자신이 파괴해야 할 장소는 옥희도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옥희도의 집은 3회에 걸쳐 등장했다. 최초에 이 집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경의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이경은 망가진 고가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모성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이 장소를 파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모성의 터전은 이경을 감쌌고, 그리하여 안정과 위안을 전달했다.

그런데 박완서는 이 서사를 화해의 과정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이경은 분명 회복했지만, 이것은 장소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경은 고가를 수리하거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소망을 품지 않는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요컨대 이경은 장소의 위안을 통해, 탈장소를 완수하였다.

4. 미군 PX : 식민화된 생존과 성역할의 전도

명동 부근의 미군 PX는 이경이 소속되어 있는 작업장이다. 이경은 스무 살의 대학생이며 중산층 가정의 딸이다. 전쟁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장의 경제적 보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이 장소에 일상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15] 그러니 미군 PX는 이경이 전쟁으로 인하여 비로소 참여하게 된 공적 영역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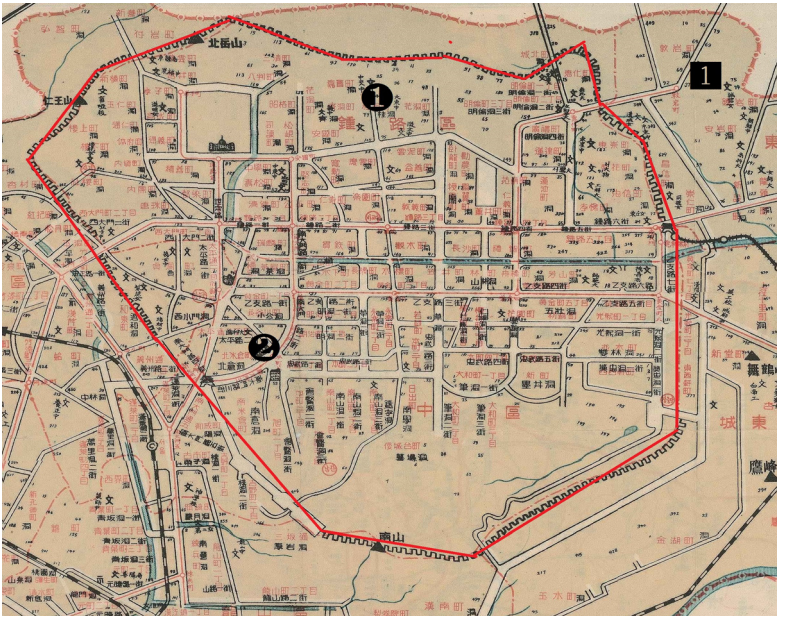


그림 1

미군 PX는 계동 고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다. 여기서 박완서는 공적

15) 여기서 전쟁은 여성수난의 원인이면서 "이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인으로 포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62-64쪽 참조)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실제 물리적 거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1]에서 ❶계동은 ❷미군 PX의 반대편에 있다. 이는 특히 성곽으로 분절되는 옛 서울의 지리적 감각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16] 우리는 성곽으로 표현되는 옛 서울의 영역 안에서 집(❶, 사적 영역)과 작업장(❷, 공적 영역)이 그야말로 양극단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실제 박완서의 전기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및 기타 회고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박완서는 성 밖의 돈암동(■1)에 거주하며 명동 부근으로 출근했다. 이러한 변화가 『나목』의 서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자세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17] 여기서는 일단, 서울이 양극성을 띤 공간으로 환원되었다는 점만을 지적하겠다. 요컨대 서울은 남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단된 공간이 됐다. 그리하여 이경이 출퇴근을 위하여 서울을 종단(縱斷)할 때, 두 영역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이경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장치가 되었다.

> 나는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그러나 번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뻥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섬을 탔다…. 나의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걸음은 을지로를 지나 화신 앞에서부터는

16) 당시 서울은 이미 용산, 영등포, 마포, 청량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말뚝」 연작 등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박완서에게 '문안', 즉 '옛 서울'의 세계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7) 나보령은 "계동 속 고가의 상흔과 피엑스 일대 명동의 부흥을 지금껏 서울을 지탱해 온 사대문의 안과 밖이라는 전통적인 공간 질서가 허물어지는 징후로서" 읽을 것을 제안했다.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이러한 해석은 두 장소가 모두 '사대문의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 줄창 뜀박질이 되고 말았다. (…) 외등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아무런 표적도 없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식 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불탕한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눌리면서 달음박질 쳤다. (18-19쪽)

이러한 거리감은 심상지리의 차이를 통해 강화된다. 위 인용문에서 PX 일대와 고가의 대비는 명징하게 드러난다. PX 일대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불빛'과 생명력이 남아있는 장소이다. 이 전시의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꼬여들어 사고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거린다. 이것은 이경이 참여한 공적 영역의 활기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명동 너머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그리고 "미로처럼 꼬불탕한 골목길"이 공포를 자아낸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경관 가장 깊숙한 곳에 계동의 고가가 있다. 이곳은 산송장의 장소로, 활기찬 난장(亂場)과 극명한 대비를 형성한다. 여기서 공적 영역의 빛과 사적 영역의 어둠은 각각 서울의 양극에 배치되어 대립한다.

그런데 박완서는 여성이 참여하게 된 작업장을 완전히 긍정적인 세계로 재현하지 않는다. 이곳은 이경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거듭나는 곳이지만, 식민주의적인 부정성과 맞닥뜨려야 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박완서는 미군 PX의 내부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공간적 차원에 아로새겨져 있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드러낸다.

>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미8군 PX아래층은 서쪽으로 삼분의 일쯤이 한국물산 매장으로 되어 있어 그 경영은 한국인 위탁업자들이 맡아 하고 있었다. (…) 갑자기 환한 조명 속에 펼쳐진 건너편 미국 물품 매장 쪽을 나는 마치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듯 설레는, 좀 황홀하기조차 한 기분으로 바라봤다.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들, 그 풍요한 상품

> 들을 후광처럼 등지고 서서 저녁 화장에 여념이 없는 세일즈 걸들.
> 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를 즐겼다. (16-17쪽)

이경이 일하고 있는 초상화부는 PX 아래층 일부를 한국인 업자들이 위탁받은 곳이다. 이러한 관계는 식민지적이다. 미군이 공간을 점유하고, 그 사용권을 할양하는 주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 PX의 건물은 식민지시기 미쓰코시 백화점이었다. 다시 말해 미군 PX는 역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점령된, 식민의 기억이 지배하는 장소였다.

한편 미군 PX에서 미국과 한국이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는 성적인 맥락을 가진다. 미군 PX의 중심구역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풍요한 상품"들은 "다이아나 김, 린다 조, 수잔 정 따위 이그조틱한 이름을 가진" '세일즈 걸'들이 도맡아 판매하고 있다. 이때 미군 PX는 미군 남성과 한국 세일즈걸이 접촉하는 장소가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굉장히 쉽게 성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경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사업수완'이 '여성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 PX가 여성을 경제적 주체로 자립시키는 장소이면서 한편으로는 식민화·성애화된 자본주의의 천박성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점은 가시적이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성 혐오의 문화정치가 작동"[18]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경은 자신을 '타락한 여성'으로 호명하는 친척들, 자신을 비롯한 '세일즈걸'들을 "갈보년"으로 호명하는 남성, 그리고 "양키들의 모멸의 시선"을 다 함께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성인물이 이러한 시선에 다만 수동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다. 이경의 정체성은 자신을 '갈보년'과 동일시하는 시선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시선들을 활용하여 자신을 연출하고 있다. 이경은 '큰댁'에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18)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19쪽.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큰아버지는 부자이고 “친척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호의에 기댄다면 부산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경은 “서울이 좋고 내 집이 편하”다는 ‘뻔뻔’한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멸시의 대상으로 유지시킨다.

여기서 이경은 왜곡된 주체가 아니라 왜곡을 활용하는 주체이다. 그녀는 식민화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주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화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몇몇 조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이경은 사회적인 악조건들을 일부러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한 효과를 산출한다. 그것은 바로 가부장제적인 성역할을 교란하는 것이다.

> ㄱ) 부옇게 흐린 날씨에 정전까지 겹쳐 네 명의 환쟁이들은 한결같이 능률을 못 내고 있었다. 나는 방금 주문받은 것을 급한 일쪽 서랍에 떨어뜨리고 환쟁이들 사이를 뒷짐지고 돌아다니며 뾰족한 목소리로 재촉도 하다가 또 적당히 짜증을 부리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은근히 공갈을 치고 말았다. (…) 일제히 그들이 움찔하는 것을 나는 손아귀에 쥔 작은 생선의 할딱임을 감지하듯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5쪽)

> ㄴ) 거의 동일 수직선상에서 한 사람을 관찰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목에 두드러져 있는 남자 특유의 목뼈와 완강한 턱밑의 푸른 면도 자국은 예기치 않은 감미로운 파동을 나에게 일으켰다. 나는 사나이가 일이 뜻대로 안 돼 초조해하고 있는 사이에 처음 느껴본 전류처럼 짜릿하던 충동을 좀더 구체적인 욕망으로 비약시키고 있었다. 그의 푸른 턱에 내 이마를 대보고 싶어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이마에 아릿한 간지러움이 오며, 싱싱한 기쁨이 전신에 흘렀다. (…) 나는 그와 나란히 걸으며, 그의 턱밑에서부터 목 부분을 유심히 훑었다. 무심결에 낮에 사다리 밑에서 그를

쳐다보며 경험한 그 짜릿한 느낌의 반복을 노렸지만 허사였다.
(52-54쪽)

ㄱ)에서 이경은 초상화부에서 일하는 '환쟁이'들을 가혹하게 부리는 관리자다. 이경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은 그녀의 사회적 위상을 재설정한다. 요컨대 점령자-남성과 우호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 권력을 제공한다. 여기서 가부장제 하의 수직적 남녀관계는 정확히 역전하고 있다. 한편 미군 PX는 남성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ㄴ)에서 이경은 사다리 위에 올라간 황태수를 바라보며 "그의 푸른 턱에 내 이마를 대보고" 싶다는 환상에 잠긴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남성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짜릿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 이경의 성적 환상은 남자를 올려다보는 보는 시선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경은 곧바로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남성 동료를 바라본다. 이 짤막한 삽화에는 이경이 결국 '우러러보는' 남성이 아니라 '나란히' 걸어가는 남성을 선택하리라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19] 여기서 '위아래'에 대한 젠더의 전통적 위상이 교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요컨대 미군 PX는 식민적·성적 자본주의의 맥락과 맞닿아 있지만, 기존의 가부장제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작동시켰다. 이러한 성적 권력관계의 반전은 이경에게 단순히 돈벌이의 요소가 아니라 의미있는 삶을 위한 조건이 된다. 본래 이경은 어머니와 고가에 고립되어 생활의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이경의 내면에 가부장제적 가족의 문제와 도덕적 책무의 문제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경은 두 오빠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죄책감의 주체'[20]다.

19) 이경은 수직적인 남녀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옥희도를 존경하는 것 같다. 이경이 가지고 있는 성적 환상은 남성을 '우러러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녀는 사다리 위에 올라간 황태수를 바라보며 "푸른 턱에 내 이마를 대보고" 싶은 "싱싱한 기쁨"을 감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쾌락은 수평적인 눈높이에서는 사라지고 만다.

20)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그런데 이러한 죄책감은 한편으로 딸과 아들의 죽음을 저울질하는 어머니와 맞닿아 있다. 이경에게 죄책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결코 오빠를 대체할 수 없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삶이란 미처 죽지 못한 것, 혹은 "누구에게 재난을 골고루 나누어주고야"마는 전쟁을 통해 징벌을 기다리는 일이 된다. 이경은 한편으로 이러한 속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은 또한 삶을 지향하고 싶다. 도덕적 주체가 되어 속죄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 집에서 죽어야죠"라고 주장하는 어머니에게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경은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일부러 타락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미군 PX가 가진 세속적이며 천박한 속성들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도덕적 책무를 부정하기 위해 과감히 선택되었다.

『나목』에서 미군 PX의 성격은 이렇듯 모순적이다. 미군 PX는 전시 서울의 여성이 막 진출했던 공적 영역의 활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식민지적·성적 자본주의의 왜곡된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박완서가 보여주는 진경(眞境)은,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상세히 묘파하고 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미군 PX는 여성이 생존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겪는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삶과 생존을 위해 공적 영역의 모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5. 경서호텔과 황태수의 집 : 성애의 장소와 탈식민

미군 PX가 이경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면, 경서호텔과 황태수의 집은 이경을 사생활의 주체이자 성관계의 주체로 불러들인다. 이것은 전쟁이 여성에게 부과한 이동성(mobility) 때문이다. 이경은 직업여성이 된 후 통제되지 않는 이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성의 성적인 초대에 응하여, 그들의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21] 8장에서 황태수는 자신의 집에 이경을 초대하여 "몸부림 같은 세

차고 흐트러진 동작"으로 애무했다. 한편 13장에서 죠는 이경을 경서호텔로 불러내어 "푸짐한 육감의 향연"을 연출했다. 여기서 이경이 방문하는 남성의 장소는 성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분절되고 있다.

> 음식점이 많은 회현동 골목에서도 유독 피부비뇨기과의 간판 때문에 눈에 띄는 낡은 일본식 2층집이 태수의 거처였다. 이층에 세 들었다 했다. (…) 사조반의 다다미방은 불기 없이 썰렁했다. 태수는 부랴부랴 난로에 장작을 지피고, 나는 구태여 그를 거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창틀에 걸터앉았다. (139-140쪽)

> 경서 호텔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상록수에 가린 커다란 일본식 주택은 철문 위에 경서 호텔이란 붉은 네온사인만 없다면 여느 주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철문은 활짝 열린 채였다. 현관까지 곧장 디딤돌이 놓여 있고, 정원은 불빛 없이 더운데 상록수들은 눈을 희끗희끗 이고 있었다. (…) 순일본식 집인데도 조의 말과는 달리 복도로 난 방의 문이 도어로 개조되어 있었다. 키 없이도 도어는 부드럽게 열렸다. 조가 창틀에 걸터앉아 두툼한 책을 읽고 있었다. (272쪽)

한편 『나목』에서 성관계의 장소들은 식민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황태수의 집과 경서호텔은 모두 회현동에 있다. 이곳은 식민지시기 욱정(旭町)으로 불린 일본인 거주지역이었다. 명치정(明治町)이었던 명동 일대와 마찬가지로 식민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 것이다. 그래서 이경은 회현동을 방문하며 식민지시기의 경관을 인식했다.

미군 PX를 비롯하여 회현동의 경서호텔, 그리고 황태수의 집은 일본

21) 여기서 이경의 이동이 주체적인 행위라는 점은 중요하다. 이경이 성적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성행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이동 중에 대상이나 약자로 전락하지 않는다.

인이 빠져나간 적산(敵産)에 미군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자리 잡은 상황을 적시한다. 일본인의 백화점이었던 곳은 미군을 위한 PX가 되었고, 인근의 일본식 주택에는 PX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한국인 인력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이 살았던 고급주택은 미군이 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치르는 호텔로 바뀌었다. 여기, 명동과 회현동 일대가 모두 미군을 '위락'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음이 드러난다. 즉 일본인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식민자가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은 이경의 섹슈얼리티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적 맥락과 조응한다. 이경은 8장에서 황태수의 유혹을 받았으나 "몸의 어떤 부분도 그를 향해 열리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황태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방적인 격정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참담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경은 12장에서 죠의 초대에 응하여, 스스로 경서호텔로 이동한다. 그리고 자신이 "죠에 의해 옷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이때 이경의 선택이 한국인 남성과 미국 남성, 피식민자와 식민자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의해 열세에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경은 시종일관 황태수를 약소한 남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군 PX의 전기공인 황태수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손을 놓기만 하면 그는 지레 겁을 먹고 굴러떨어질 듯이 불안"했다. 반대로 죠와의 만남은 "털북숭이 그의 억센 손에 내 작은 손이 아프도록" 잡히고,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내가 관능적인 암짐승"으로 변하는 느낌을 동반한다. 이때 황태수와 죠의 대비는 극명하게 포착되고 있다. 황태수가 PX에서 전구를 훔쳐 나가다가 '서진 발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황태수는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열세에 있으며, 이는 이경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박완서는 이경의 섹슈얼리티를 다만 식민성의 기호로 놓아두지 않는다. 이경을 포함하여 『나목』의 여성들은 다만 수동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녀들은 반대로 식민자를 이용하는 실천을 보여

준다. 이경이 죠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그를 통해 (…) 영육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자기 인정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미숙의 경우 "미국도 가고 싶지만", "남자와 여자와의 최초의 접촉이 황홀하리라는 꿈" 때문에 미군과의 결혼을 포기한다. 경멸적인 시선으로 포착되는 다이아나김 역시 주체적으로 식민자를 상대한다. 그녀는 "하다못해 양놈들한테 X구멍을 팔 때도 딸라를 먼저 받아서 깊숙이 찔러넣은" 여성이며, 이렇게 획득한 화폐를 통해 "건강하고 어딘지 모르게 품위까지" 있는 아이들을 길렀다. 여기서 이경과 미숙, 다이아나김[22]은 외국인 남성의 욕망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경을 비롯한 여성들은 식민지적 자본주의에 의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현동은 식민자의 성적 착취가 수행되는 장소, 혹은 피식민자의 열패감이 표현되는 장소로 압축되지 않는다. 특히 이경의 성적인 모험은 식민화된 장소를 주체적인 실천의 장소로 전환시키고 있다.

『나목』에서 이경의 성관계는 친밀성의 교환과 연관되어 있다. 황태수는 이경을 초대하기 위해 집을 청소하고 장식했다. 이러한 구애의 행동은 이경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가 흐르며 긴장이 풀어"지게 한다. 한편 죠는 "섹스에의 강한 동경"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한 연애감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는 한국의 여성과 고궁을 산책하고, "번화가를 거닐고 쇼핑을 하고 커피숍에서 음악"을 감상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이경은 "옷을 벗기 전에 할 일", 즉 친밀감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성관계는 장소애(topophilia)와 연관되어 있다. 황태수에게 성

22) 신수정은 이경이 다이아나김에 대해 갖는 적개심을 조명하며, 이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떤 파렴치한 짓도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박완서의 반대 의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70쪽) 그러나 이러한 적개심은 이경이 갖는 열패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이경은 '양갈보'조차 하지 않는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박완서 소설에서 적대적으로 묘사되는 대상이 서술자의 위악과 왕왕 연결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졸업하고 의젓한 곳에 취직해서 신뢰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때 섹스는 재생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한편 죠에게 있어 성관계는 낯선 땅을 익숙한 장소로 전환시키는 실천이다. 그는 “이 나라에서 내 생애를 마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 나라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고궁(古宮)을 배경으로 이경을 애무하는 환상 속에는, 성애와 장소애가 혼재되어 있다.[23] 그것은 여성과의 친밀성을 경유하여 땅에 대한 친밀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이경의 성애는 다만 수동적인 욕망의 대상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성과 장소애를 생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이경 스스로의 친밀성과 장소애를 회복하는 일이다.

회현동에 있는 성애의 장소들은 계동에 있는 고가와 ‘차이의 지리(geography of difference)’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군 PX와 고가는 활기가 있는 영역과 부재하는 영역을 각각 대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현동과 계동은 친밀성이 존재하는 장소와 상실한 장소를 각각 대표한다. 고가는 사적 영역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경은 고가에 어떠한 손님도 데려가지 않으며, 특히 결합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접근을 막는다. 이경은 옥희도와 함께 귀가하다가도 멀리 고가가 보이면 “그때까지 찌르고 있는 그의 헐렁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는 날쌔게” 도망쳤다. 그녀는 황태수와 함께 귀가하던 중에도, 고가가 가까워오자 그를 황급히 돌려보냈다. 여기서 고가는 “이제부터 혼자여야 한다는 비장한 의무”를 불러일으켜 인간적 접촉을 차단하는 장소이다. 이에 반해 황태수의 집과 경서호텔은 타인을 초대하여 친밀성을 증진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때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두 장소의 차이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

23) “이 황량한 도시 어디에나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 잔디가 돋으면 너와 그 궁전의 뜰을 거닐 것을 공상했다. 잔디를 뒹굴며 너를 애무하길 바랐어. 너 그럴 용기가 있니? 있으면 너는 분명히 창불걸.” (246쪽)

다. 회현동이 고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은, 이경이 어머니의 세계에서 멀어지고자 행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경이 황태수의 애무를 거절했다가도 그에게 되돌아갔던 것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상처 입은 것처럼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 그렇게 크게는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경이 죠와 섹스하려는 것은, 죠가 "이방인이 뚫을 수 없는 터부"에 의해 친밀성에 대한 '기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은 자신에게 결핍된 친밀성을 타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천은 고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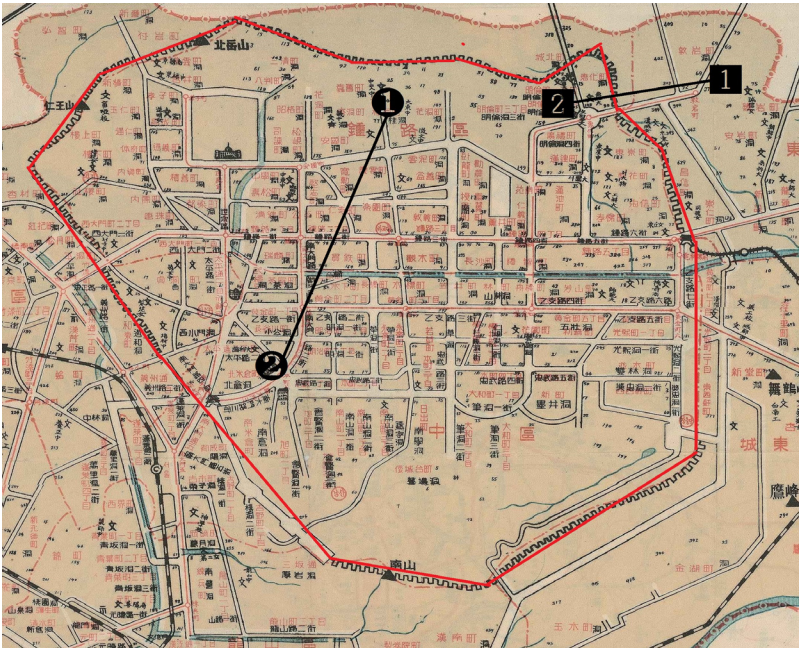


그림 2

이러한 해석은 『나목』의 지리를 실제 박완서의 그것과 비교하는 가운

데 강화될 수 있다. 박완서의 집은 본래 ❶돈암동[24]에 있었으며, 남편 호영진은 ❷명륜동에 살고 있었다.[25] 그러나 이러한 가까운 거리는 곧 ❶계동과 ❷회현동을 잇는 먼 거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나목』에서 이경과 황태수 사이의 심리적·사회적 거리가 강조됐다. 이경이 황태수를 만나러 가는 것은, 그야말로 서울을 종단하는 이동이 됐다.

한편 서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고가와 그 반대편에 있는 '적산가옥'의 관계는 탈식민적인 맥락으로 재구성된다. 여기서 한국적인 장소는 파괴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친밀성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곳에는 오직 "여러 겹의 터부"만이 남아 삶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다. 한편 식민화된 장소에는 월남민[26]과 미군 등 뿌리 뽑힌 사람들이 모여 들어 친밀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경은 한편으로 전통적 장소가 가지는 도덕적 명령('타부')을 위반하며, 자신에게 잠재된 친밀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식민화된 장소에서 타부시되는 섹스를 하는 것은 고갈된 친밀성을 회복하는 실천이 된다.

궁극적으로 이경은 친밀성을 거부하는 자신 및 어머니의 세계(고가)에 함몰된 자신을 극복하려 한다. 또한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지러진 지붕을 대낮"에도 보고 "미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식민자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재생하는 실천이 되었다.

---

24) 현재의 삼선동 일대이다. 1963년도에 돈암동에서 현재의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 등으로 분리되었다.

25) 이러한 정황은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서 다루어졌다.

26)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 따르면 박완서의 남편 호영진 씨는 서울 토박이였다. 하지만 『나목』에서 황태수는 옥희도와 마찬가지로 월남민이다. 이러한 '허구적' 전환에 따라 황태수의 가족과 장소, 친밀성에 대한 욕망은 보다 높은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6. 계동 양옥 : 장소의 재생, 혹은 탈장소의 실천

지금까지 『나목』에 나타난 장소들을 분석했다. 『나목』에서 모든 서사적 장소들은 계동 고가와의 대비를 통해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동 고가가 상실한 모성, 생명력, 친밀성, 역동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경은 이러한 새로운 장소들을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실천하고, 주체로 자립했다. 요컨대 『나목』은 전쟁이 야기한 탈장소의 상황 속에서 주체화하는 여성의 서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탈장소의 서사는 이경이 고가를 해체하고 새로이 양옥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나목』의 마지막 장에서 이경은 황태수와 결혼하여 고가가 있던 자리에 양옥을 신축했다. 한마디로 집을 떠난 이경의 여정은 집에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이경이 고통스러운 탈장소를 끝내며, 장소로 후퇴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박완서의 "여러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남성 보호자를 잃은 '여염집'의 처녀가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도하다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결혼을 해 새 가족을 형성"[27]하는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
>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27) 김은하, 앞의 글, 329쪽.

>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370쪽)

그런데 고가의 철거와 신축 과정은, 이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장소의 생산이 사실은 탈장소의 실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위 인용문에서 이경은 고가의 철거가 아버지와 오빠, 어머니 등 가족구성원의 흔적들을 지우는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이경은 장례식에서 '거짓말'[28]을 통해 상징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었다.[29]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고가를 철거하고 나온 고재(古材)들을 "몇 푼의 돈"과 바꾸는 모독적인 거래를 단행했다. 이는 모두 과거 및 과거의 장소와 결별하기 위한 실천이다. 황태수가 고가를 물질적으로 철거하고 있다면, 이경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파괴하고 있다.

여기서 이경은 '창조적 파괴'[30]의 주체다. 전쟁이 고가를 반파시켰다면, 이경은 그 나머지를 허물었다. 박완서는 이러한 파괴를 장소의 생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그린다. 요컨대 흉물스러운 고가는 다만 '몇 푼의 돈'

---

28) 이경은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가 폐병을 얻어 죽었다고 상상했다. 박완서는 이러한 상상을 "엉뚱한 생각", "어리석은 꿈"으로 단정 짓는다. 여기서 박완서는 스스로를 '죄책감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거꾸로 모친을 살해한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고 있다.

29) 우현주는 박완서 소설에서 "상실한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후회 속에는 상상적, 상징적 모친 살해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어머니와의 상상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문자적 로고스의 세계이자 아버지의 법인 식민적 학교 규율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됐다. (우현주, 「어머니의 법과 로고스의 세계」, 『인문학연구』 제4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92쪽)

30) 과거의 사회적 관계들을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것은 근대의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다. 슘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로 표현했다. 데이비드 하비는 근대사회에서 특히 지리적 차원의 '창조적 파괴'가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과거-공간의 파괴를 동반한다고 보았다.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이종인 역,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 2016; 데이비드 하비, 초의수 역,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6) 박완서의 소설 역시 신생(新生)의 필수적 절차로서 파괴를 선행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으로 바꾸기 위해서 뿐 아니라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기 위해서 파괴되어야 했다. 이때 고가를 허물고 지은 양옥은 이경이 맞이하게 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며, 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의 근대성을 예고하는 표상이다.[31] 이것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가의 해체와 재구축은 자아의 해체와 재구축을 동반한다. 이경은 고가를 허물며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이는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가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이해됐다. 여기서 장소와 주체는 모두 '창조적 파괴'의 과정 속에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나'와 '장소'는 모두 해체되어야 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겨진 것이다. (371쪽)

한편 이경은 새롭게 만들어진 장소에 탈장소의 조건을 존치시키고 있다. 13장에서 은행나무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외상적 기억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러니 위 인용문에서 이경은 새로운 생활의 터전에, 무참한 가족파괴의 기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계동 양옥을 '파괴된 장소'로 만든다. 애초에 양옥부터가 고가를 허물고 만들어진 건물이다. 게다가 후원의 은행나무는 유년기의 유토피아가 파괴되었

31) 정혜영은 박완서 소설의 양옥을 "사적 영역이라고 구획된 공간이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파악했다. 이때 『나목』의 결말은, 전쟁 이후 도시공간의 재건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천박성이 함께 성장했음을 예고하는 것이 된다. (정혜영,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74쪽)

다는 점을 잊을 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계동 양옥은 이중으로 파괴된 장소이자, 상실감을 지속시키는 장소가 된다. 여기서 계동 양옥은 실로 탈장소의 상황이 끝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계동 양옥의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는 불길한 경관은, 사실 이경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32] 즉 이경은 한편으로 과거의 해소를 거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계동 양옥의 건축은 고가를 단순히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계동 양옥은 탈장소의 원리가 각인된, 본질적으로 모순된 장소이다.

이러한 모순된 장소성은 이경의 모순된 주체성과 연결된다. 이경은 계동 양옥을 통해 새로운 친밀성의 영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경은 황태수의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경은 아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가족 소풍에 따라나서지 않고, 홀로 옥희도의 유작을 보러 가기로 결심한다.[33] 그녀는 "격한 모정"에도 불구하고 "내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옥희도 부인과 같은 '풍요로운 모성'과는 다른 여성상이다. 여기서 이경은 사적 영역의 수호자이자 이동성의 주체라는 역할 사이에서 길항한다. 그리하여 그녀의 몸은 이질적이며 심지어 적대적인 성격이 병치(juxtaposition)되어 있는 모순의 장소가 된다. 이것은 안정과 자유라고 하는 이중의 목표 사이에서 진동하는 현대인의 초상이기도 하다.[34]

정리하자면 『나목』에서 계동 양옥을 통한 장소의 재생은 결국 탈장소

32) 이러한 부조화의 의도적인 연출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적대적인 간극을 가시화한다. 그리하여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이경의 내면을 표현한다.

33) 이 여정에는 황태수가 동행하게 되지만, 이경은 될수록 혼자이고 싶었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34) 현대인의 사랑이 사적 영역의 안정감과 자율적 이동성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게른샤임,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1999 참조.

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박완서가 여성의 탈장소를 축복의 조건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루어진 여성의 탈장소를 뿌리뽑힘(rootless)이나 장소상실(placeless)의 의미로 파악했다는 뜻 역시 아니다.[35] 이는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이동성이야말로 박완서가 경험했던 현대성의 조건이었다는 의미다. 박완서는 수많은 글쓰기를 통해 실제로 유년기를 보냈던 장소들을 정교하게 재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열망을 다뤄왔던 것이다.[36]

다시 말해 박완서가 전시 서울을 재현하는 가운데 드러낸 것은, 바로 삶의 기본적 조건이 되어버린 탈장소의 상황과 그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주체의 모습이다. 박완서는 파괴된 도시를 제도(製圖)하며 삶의 주관적·사회적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가시화했다. 이제 여성은 사라져버린 장소를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원하지 않는다.[37] 여기, 유년기의 장소를 되살리면서도 그로부터 끈질기게 이탈하는 박완서의 모순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35) 도린 매시에 따르면 "장소를 아무 문제도 없는 집, 또는 향수에 취해 있는 곳으로 보려는 인식"은 주로 장소를 여성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젠더적인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57쪽)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동성이나 변화를 '상실'로 파악하는 개념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3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박완서가 자기 친족의 유별난 연대의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장면, 그리고 대학진학을 '엄마'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하는 장면 등은 이를 적절히 예시한다.

37) 박완서의 마지막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에서, 이러한 장소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 있고 싶어 우는 건 아니다."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2) 즉 향수는 과거의 장소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1-359쪽.

2. 단행본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둥지, 1997, 93쪽.

데이비드 하비, 초의수 역,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6, 1-359쪽.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57쪽.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이종인 역,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 2016, 1-696쪽.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게른샤임,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1999, 1-367쪽.

이 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40쪽.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152쪽.

프레드릭 제임슨, 강내희 역,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지본주의 문화논리」,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 1989, 139-202쪽.

Kevin Lynch,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pp.1-194.

3. 논문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권 2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44-165쪽.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13-341쪽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85-113쪽.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체험과 토포필리아」, 『한국문학이론

과 비평』 제20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43-70쪽.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11-138쪽.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87쪽.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51-81쪽.
우현주, 「어머니의 법과 로고스의 세계」, 『인문학연구』 제4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77-203쪽.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83-110쪽.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호, 한민족어문학회, 2013, 869-895쪽.

Abstract

The War Time Seoul and Women's Displacement Represented in Park Wan-Suh's *The Naked Tree*

Yu, In-hyeok

Park Wan-Suh has repeated the story about a woman in her twenties struggling to protect her family in war time Seoul. This brief summary complement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war, gender, and geography in Park's literature. It raises the issue of how women's growth could be carried out in space and time in the city of war time.

What Park is showing in *The Naked Tree* is the subjectivity of displacement derived from war. The war destroyed the place. In particular, it has demolished the area of the family that protects and restricts wome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destruction of the place that provides safety and security has moved women into a world of instability, lonely independency, and hostility.

In this context, women (Lee Kyung) became the subject of city reading. After the situation of displacement was given, Lee was routinely crossing the broad area of the city. She moves from one extreme to another in the city every day. As a result, she observes the dynamics of Seoul that she has barely seen before.

The narrative of *The Naked Tree* consists of a chain of various places newly experienced by women in the war. Lee crosses various places such as Myeong-dong PX, Ok hee-doh's house, Hwang Tae-su's house, Kyong-Suh hotel, and the plot is

developed by moving, observing, and experiencing each place.

Therefore, this article traces the new mobility of women, which is proposed by *The Naked tree*, and looks at the places that they have experienced. Through this, *The Naked Tree* will appear as a 'cognitive map' of war time Seoul, which is Park reconstructed through an agency named Lee Kyung.

Key words : Park Wan-Suh, The Naked Tree, war, gender, geography, city reading, cognitive map, place, displacement, mobility, Seoul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